

광주시, 예타 통과 車 100만대 사업 속도낸다

지역 부품기업·관련기관 참여 조찬 간담회 市·연구기관·기업 통상사절단 운영도 검토

광주시가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세부 실행계획 수립 마련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14일 광주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자동차 부품기업 조찬 간담회를 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부품기업, 그린카진흥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광기술원 등 지역 유관기관 등이 참여했다.

부품기업들은 국내 완성차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증가, 미국·일본 등의 보호무역 정책, 최근 브렉시트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부품기업들의 성장이 위축됐다며 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기업 유치로 납품 확대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신규 부품 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자동차 100만대 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도 요청했다.

친환경 자동차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에 적합한 비즈니스모델 정립,

전자자 관련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용장비 등 인프라 구축, 환경오염물질 배출체제를 위한



14일 오전 광주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자동차부품기업 조찬 간담회'가 열렸다. 광주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로부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광주시청 제공>

협업화단지 조성 등에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시·연구기관·기업으로 구성된 통상사절단 운영 등도 검토됐다.

시 관계자는 "여러 채널로 수렴한 의견을 실행계획에 반영하겠다"며 "부품기업의 애로사항도 줄이고 자동차 산업 발전도 돕는 추진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 시는 지난해부터 구성된 자동차 산업 관련 협의체와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자동차산업협회, 부품기업협의체 등 11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해 산업정보를 공유해 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고용률 전국 평균보다 높고 실업률은 낮아

통계청 '6월 시·도별 현황' 고용률 67%, 실업률 2.6%

전남지역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실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고용률은 66.9%, 실업률은 2.6%였다.

이는 전국 평균 고용률(66.5%)보다 0.4%p 높은 수치다. 전국 평균 실업률은 3.6%로 1%p 낮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고용률은 0.7%p 하락하고 실업률은 0.6%p 상승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 수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5000명이 늘어 경기도(4만7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국면과 맞물려 경남,

울산 등 제조업 종사자가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수는 오히려 늘어 아직까지는 조선업 고용위기 상황이 고용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운수·통신업이 6000명 늘어난 반면 농림어업은 1만5000명이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취업자는 2000명이 늘어 고용률이 1.2%p 상승했지만 실업자도 2000명이 증가해 실업률도 함께 1.4%p 상승했다. 이는 경제 상황이 나빠져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경제활동인구가 증가 9만 8000명에서 10만4000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전라산업내러리 창출과 청년 지원정책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지역고용혁신프로젝트(3년간 150억 규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닥터헬기 섬 주민 생명 지킴이 역할 '특독'

4년 10개월간 1000회 출동

전남 닥터헬기(응급의료전송헬기)가 4년 10개월여 만에 출동 1000회를 돌파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목포한국병원에 배치돼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응급처치로 섬 지역 응급환자 생명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닥터헬기가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신안 장산도 응급환자 이송으로 출동 횟수 1000회를 기록했다.

그동안 이송 환자는 중증외상 212명, 급성뇌졸중 154명, 심장질환 72명, 기타(일반외상·의식저하·호흡곤란 등) 562명으로 긴급 후송을 하지 않을 경우 생명이 매우 위독한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지역별로는 신안 643명, 완도 165명, 진도 158명, 영광 14명, 해남 9명, 목포·

장흥·함평 각 2명, 고흥·강진·무안 각 1명, 고승도로 2명 순이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장비와 약품이 탑재돼 출동 요청 시 의료진이 5분 이내 탑승·출동해 현장과 이송 중 헬기 내에서 응급처치를 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가거도 헬기 추락사고 이후 섬 지역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인구가 많고 육지와 멀리 떨어진 50여 개 섬을 중심으로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10개 거점 보건지소를 계획하고, 현재 6개소를 확정해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있다.

또 현재 목포한국병원을 기준으로 반경 100km까지 운행하는 헬기를 2017년 말로 10대 이상 늘려 145km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중형 헬기로 교체하는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긍정적 검토의견을 받기도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새 이사 5명 선임

전남도 공기기업인 전남개발공사는 오는 16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5명의 후임자를 선임했다.

새 이사는 김기욱 양지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상석 순천대 교수, 나양명 변호사, 김병원 목포대 교수, 정용태 정암대 교수 등이다. 임기는 3년이다.

앞서 개발공사가 이사진을 공모한 결과 회계, 경영, 법률, 관광, 건설 등 5개 분야에 27명이 응모했다. 개발공사는 서

류와 면접을 거쳐 분야별로 순위를 매겨 2명씩을 선발해 이낙연 지사에게 추천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반드시 1순위로 추천된 후보가 이사로 선임되는 건 아니다"며 "지사가 전문성 등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발공사 이사회는 전원 비상임이사로 들로 구성되며, 회의 수당으로 30만원 가량이 지급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윤 시장, 차 100만대·수영대회 국비 확보 '잔결음'

지역 국회의원 찾아 현안 31건 2230억 예산 반영 요청

현안 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윤장현 광주 시장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윤장현 시장은 14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두루 만나 내년도 국비지원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윤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기획재정부의 2차 예산심의에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와 지역구사업, 관심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별로 지원 요청 사업을 분리해 건의했다.

윤 시장은 광주의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비확보의 걸림돌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사업을 위해 한 톨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윤 시장이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한 사업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403억원), 에어가전 혁신지원센터(20억원), 세계수영선수권대회(74억원),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15억원), 호남권 진로직업체험센터 건립(120억원) 등이다.

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170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328→550억원), 첨단실감 콘텐츠제작 클러스터 조성(163억원), 남구 도시점단산단 진입도로 개설(13억원) 등을 포함해 총 31건 2230억원이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천·승촌보 3등급 ... 영산강 수질 10년새 좋아져

광주와 전남 나주 경계의 영산강 수질이 10년 사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영산강 승촌보 지점의 생활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2005년 7.9mg/L에서, 지난해 4.6mg/L으로 줄었다. 이는 그동안 42% 개선된 것으로 4등급(약간 나쁨)에서 3등급(보통 등급)으로 올라섰다.

특히 녹조의 원인이 되는 성분인 총인(T-P)도 2005년 6등급(매우 나쁨) 0.856mg/L에서 지난해 3등급(보통등급) 0.147mg/L으로 개선됐다. 영산강의 대표적 오염 하천이었던 광주천은 BOD가 2005년 6등급(매우나쁨)인 11.3mg/L에서 지난해 3등급(보통등급) 3.8mg/L으로 좋아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전' 광주시의회

더민주-국민의당 후반기 원구성 일주일째 파행

광주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자리싸움'이 지속되면서 일주일째 분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 일당독점 체제였던 시의회가 지난 4·13 총선을 전후해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 양당체제로 바뀌면서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양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장선거 자유투표 방식에 대한 양당 간 이견으로 협상이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8석 배분 협상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시의회는 현재 더민주 의원이 13명, 국민의당 의원이 8명으로, 더민주가 수적으로 우세하다. 당 대(對) 당 대결 구도라면 더민주 측이 당연히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조영표(국민의당) 의장을 당선시킨 '주류파'에 속했던 더민주 의원 4명이 당론을 떠나 국민의당 측으로 이탈할 가능성 커지면서 더민주 측이 불리한 입장이자, '주류' 측은 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시 12명이 '스크림'을 짜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직을 나눠 갖고, 후반기 의장으로는 이은방 의원이 나서기로 사실상 약속이 됐다.

하지만, 4·13 총선을 전후해 당이 바뀌고, 4명의 의원이 더민주에 잔류하게 되면서 주류측 입장에서는 후반기 의장선거가 꼬이게 됐다.

반면, 이들 4명을 제외한 더민주 의원 대부분이 전반기 의장선거에서 패해 '비주류'로 밀려나면서 8석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한 만큼 이번 후반기 원구성에서는 절대 밀릴 수 없다는 분위기가.

또한, 국회의원 8석을 모두 국민의당에 내준 더민주의 의정권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시장과 중앙당까지 나서 '지원사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결국은 더민주 소속이지만, 이탈 가능성이 큰 4명의 의원의 표심 향배가 후반기 의장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보인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8일 분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양당이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키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돈도니
생화산당골과

배달전문점
상표등록번호 제 41-0328004호



저렴한
창업비용 가능



안정적인 매출
<트럼프 지출 없음>

돈도니가 광주에서 이뤄낸 4개월의 성공 신화!

2016년 11월 14일

광주 삼촌점

월 4,300만원

2016년 4월 7일

광주 수완점

월 3,200만원

2016년 6월 9일

광주 진월점

일매출 120만원

24시간 가맹상담 문의
1544-9217

광주 첨단점
7월 OPEN 예정!

가맹개설 조건

- 인테리어
- 간판&시트지
- 주방기구
- 주방비품

표준면적 - 15평

- 포스시스템
- 유니폼
- 판촉물
- 가맹비
- 교육비
- 계약이행보증금
- 초도물품
- 오토바이

= 3,695만원으로 창업가능!

* 상기 내용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www.DONDONI.co.kr

전국 가맹현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